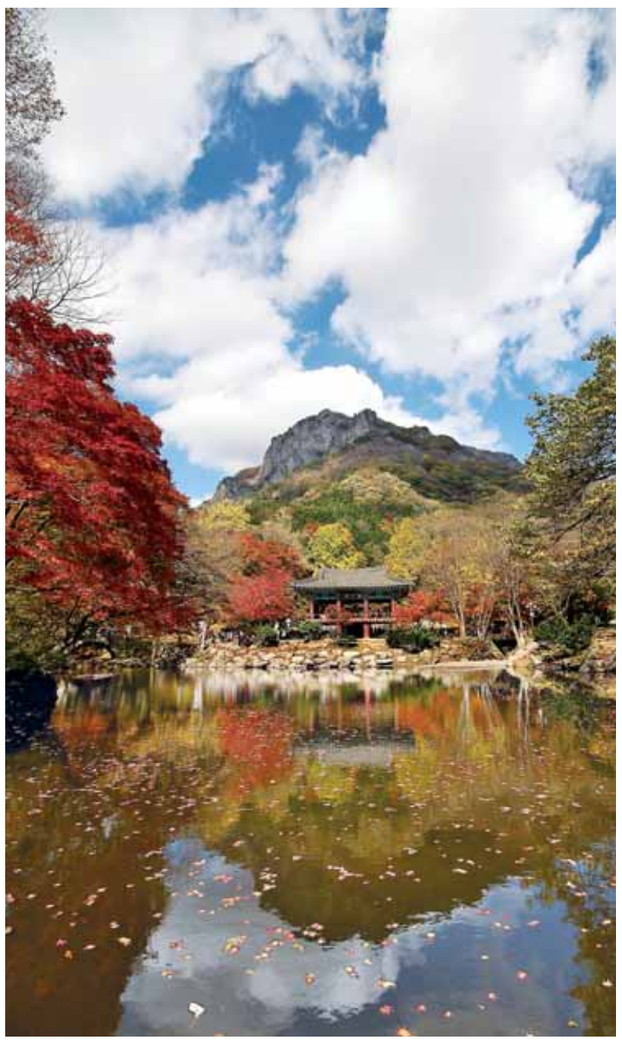
법문 듣고 음악회 즐기고 가을산사 힐링 문화축제



장성 백양사가 21일부터 11월13일까지 '백양사애기단풍축제'를 개최하며 인문학 강좌, 산사음악회 등을 통해 사색과 힐링을 제공한다. 사진은 백양사 쌍계루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장성 백양사 내달 13일까지 '애기단풍축제'
인문학 특강·음악회·사찰음식 시식·다도 체험
보성 대원사 내일 '어린왕자 찾아오다' 예술제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 전남 산야는 고운 단풍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유명한 보성 대원사에서 단풍과 더불어 사색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백양사가 21일부터 11월13일까지 자체 기획한 '백양사애기단풍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떠들썩한 분위기 보다는 음악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는 21일 오후 2시 백암산 백학봉 국기단에서 산신제을 봉행하며 시작된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축제기간 주말(토·일요일 오전 11시30분)마다 개설되는 '명사 초청 인문학 특강'과 '큰스님 법문'이다. 22일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의 '사회복지 발전과 종교의 역할' 강의를 시작으로 23일에는 무공스님(백양사 선원장)이 '간화선의 참맛'에 대해 들려준다. 이어 노기욱 전남문화연구소장, 지선 백양사 방장스님, 공영갑 장성문화원장, 토진 주지스님,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 정연만 전 환경부차관이 차례로 강단에 선다.

쌍계루 앞 광장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펼쳐진다. 기세규 명창, 윤민제 바리톤, 통기타그룹 '농장다리' 등이 출연해 국악, 클래식,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선사한다. 관람객 누구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기부도 하는 '기부노래방'도 운영한다.

그밖에 국내 사찰음식 대가 천진암 정관스님이 주관하는 사찰음식 시식, 전통 불교 용품·다도·놀이 전시 체험도 마련된다.

한편 28~30일은 장성군이 주최하는 '장성백양단풍축제'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61-392-7502.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는 어린왕자를 만날 수 있다. 22일 오후 4시 '보성 천봉산 자락 아실암에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찾아오다' 예술제가 열린다. 내년 4월에 개최할 예정인 생텍쥐페리 탄생 108주년 기념 '어린왕자' 특별전 사전 행사다.

보성 대원사 '어린왕자 예술제' 포스터.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선지식인(善知識人) 53명을 찾아 가르침을 듣고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간 '선재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생텍쥐페리 소설 '어린왕자' 주인공도 별 7곳을 여행하며 지혜를 얻은 후 고향별로 돌아간다.

이번 행사는 선재동자가 유럽에서 어린왕자로 환생한 것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공연, 소설 이야기 등으로 꾸며진다. 기획을 맡은 이순남 (사)문화사랑시민연대 대표가 소개하는 어린왕자 명대사를 시작으로 첼리스트 정아름씨가 어린왕자 OST를 들려주고 광주 어린이 요들합창단은 '이른 아침 해 빛날때', '도레미송' 등을 선보인다.

또 해가 진 이후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어린왕자에게 엽서보내기, 군고구마·김밥 나눔 등을 진행한다. 외지인들을 위해 템플스테이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61-852-30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70년 인생 화폭에…이기례 고희 기념전

26일까지 갤러리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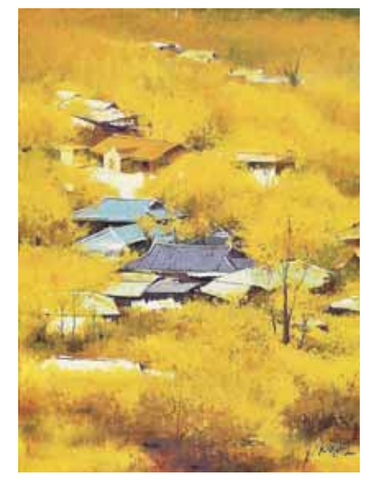
이기례 작가가 70년 인생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은 전시를 연다. 26일까지 갤러리D에서 고희 기념전 'Seventy'를 연다.

2012년 이후 4년 만에 갖는 이번 전시에서는 '세월을 매듭지어 보자'는 의미로 전시 주제를 상징하는 작품 70점을 보인다.

이 작가는 자연 풍경과 일상을 소재로 선과 색, 빛으로 대상을 밝게 표현한다.

작품 '산동의 봄'은 노란 산수유꽃 사이사이로 고개를 내민 기와집들이 인상적이다. 샛노랗게 물든 마을 정경은 순수한 옛추억을 불러 일으킨다. '단풍'은 붉은 색으로 캔버스를 채웠다. 가을 하늘 아래 물들어 가는 단풍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계곡 풍경을 그렸다. '고독'은 활짝 핀 도라지꽃을 소재로 꽃말 '영원한 사랑'과 그리움을 전해준다.

특히 작가는 똑같은 소재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퍼즐처럼 이어지는 연작 형태로 담아내며 자연스러운 시간 흐름을 작품에 담았다. 특별히 손자·손녀 인물 작품도 전시하며 가족에 대한 사랑도 표현한다.



'산동의 봄'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개인전 4회, 100여회가 넘는 그룹전에 참여하고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 목우회전 등에서 수상했다. 현재 이레화실을 운영하며 후학양성과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강진·곡성서 공연

<22일> <29일>

'국악 꿈나무들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제11회 정기공연 '남도스토리'를 오는 강진아트홀 대공연장(22일 오후 5시)과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29일 오후 5시)에서 연다.

'남도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공연은 법성포단오제, 강강술래, 가야금산조 등 전남 지역 문화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어린이 국악뮤지컬 '우리들의 단옷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법성포단오제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단오 이야기를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풀어냈다.

또 新 강강술래 '달에게 바다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그 밖에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김오채류 설장구놀이 등 전남도가 배출한 명인들을 잇는 꼬마 국악인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전석 무료. 문의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

파리 오르세 미술관 마네·드가 작품 감상

'인문지행' 23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서 10월 행사

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문화예술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인문지행'은 매월 한차례씩 세계의 미술관 작품들을 시민들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 작품들을 살펴보는 두 번째 자리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관습을 거부한 혁명적 화가였던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 '올랭피아'와 움직이는 인체를 정밀하게 그리는 소묘의 대가로 발레를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긴 드가의 '발레수업', '앱생트를 마시는 사람' 등을 감상한다. 그밖에 피사로와 모로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마네 작 '풀밭 위의 식사'

참가비는 무료다. 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문화재단 재독작가 정영창씨 특강

2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문화재단은 24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재독작가 정영창〈사진〉씨를 초청해 '생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정 작가는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11월6일까지 열리는 '정영창 특별전'에 참여하고 있다. 먹과 아크릴물감을 섞어 만든 검은색 배경에 해골, 카미카제, 덕혜옹주 등을 소재로 인류 평화를 이야기한다.

목포 출신으로 지난 1983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래 30년간 뒤셀도르프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동서양 정신세계를 모두 경험한 그는 제3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작품 소개와 함께 폭력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인디언 수니가 출연해 '반전(反戰)과 평화(平和)'를 표현한 정영창 작가의 작품 성향에 어울리는 공연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강연은 누구나 전화 사전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8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